

지역 소식 통

부안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부안군은 본격적인 입산철 생 산철을 맞아 입산물 채취 등으 로 인한 산림 피해 및 산불 발 생 우려가 증가하는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 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5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 기동 단속과 연계해 산불 을 야기시키는 산림 내 취사행 위, 입산물 불법 굴취 · 채취, 불법 벌채 등의 행위를 집중 단 속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을 보호하고 산불 예방에 힘을 기울인다.

입산물 불법 채취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 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입 산물은 모두 몰수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보호에 대 한 대국민 경각심 제고 및 사회 질서 정립이 필요한 시기로 지 도 ·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농기계 안전교육
순회수리 서비스 확대

고창군 ‘농기계 안전교육 · 순 회수리 서비스’가 올해부터 마 을 단위까지 확대 시행된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영농철 을 맞아 농기계를 무상으로 점 검하고 수리해주는 농기계 순 회수리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 고 있다.

올해는 기존 읍 · 면 소재지 단위에서 마을 단위로 대폭 확 대했다. 특히 수리센터에서 반 경 4km이상 떨어진 189개 격오 지 마을을 우선적으로 방문해 농기계를 수리해주고 있다.

소형 농기계의 안전 점검과 수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대사고를 예 방하며,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 이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19년도부터 시작 돼 지난해에는 모두 369대의 농 기계를 수리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전반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의 증대를 여는 계기 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회전교차로, 교통 편의 향상 집중

부안군, 교통 흐름 개선 시간 절약 · 안전 확보 · 중앙교통섬... 지역 홍보 등 효과 커

부안군은 회전교차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탐방객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 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교통 흐름 개선으로 시간 절약 및 안전 확보,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으로 환경 개선, 지역주민 과 탐방객 모두 만족하는 교통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현재 군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는 34개소이며 올해 추진하는 회전교 차로 6개소가 완공되면 총 40개소가 설치된다.

군 건설교통과는 13개 읍 · 면과 협

력에 특색있게 유지·관리할 계획이다. 군은 국도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불합리한 교차로를 개선하고 자 오는 10일까지 읍 · 면과 협조해 수 요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5월부터 전문 기관(한국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에게 자문 협조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20일 착공한 군청 삼거리 회 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4지 2차로형이 며 총사업비 15억원으로 미매입 편입 토지 2필지는 수용재결 후 법원 공탁 으로 지역주민 및 탐방객 교통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

해 건축물 2동을 철거, 우회도로 확보 와 교통신호등 등을 지난달 철거, 오 는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산면 평 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9억 원을 들여 오는 8월 완료할 계획이고 부안을 농어촌버스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6억원을 투입해 오는 11월 말까 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난달 착공한 진서면 곰소 회전교차 로 설치 사업은 6억원이 투입돼 오는 11월 말 완료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벚꽃축제+장터+이벤트... 정읍 사회적경제가 시민 속으로

마을기업 5곳 · 사회적기업 3곳 · 공동체 12곳 등 총 20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정읍시가 시민들과 사회적경제기업 을 잇는 ‘2025년 제2회 사회적경제기 업 장터’를 오는 4월 5일 정읍천변 달 하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장터는 벚 꽃축제와 연계해 오후 2시부터 9시까 지 운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소통을 목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는 마을기업 5곳, 사회적 기업 3곳, 공동체 12곳 등 총 2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한다. 각 기업 은 정성껏 만든 다양한 제품을 시민들 에게 소개하고 판매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를 기대하고 있다.

장터는 오후 3시부터 본격적인 제품 판매 · 홍보로 시작되며 시민 참여형 이벤트도 다수 준비돼 있다. 추억의



먹거리와 함께하는 노래자랑, 경품 이 벤트 등이 진행된다. 특히 2만원 이상 구매한 시민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지 급돼 더욱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장터를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시민과 사회적경제

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소통의 장으 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연간 10회 장터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 3~4회 차 장터는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열 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제와 연계해 열릴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5년 탄소중립 · 녹색성장위원회 출범

부안군은 2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부안군 탄소중립 · 녹색성장 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 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 · 에너지 · 교 육 ·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 가를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을 위촉하 며 위원회 구성을 공식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군의 탄소중립 정 책과 녹색성장 전략 전반에 대한 자문 과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부



안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의 10개년 법정계획으로 군의 온실가스 배출 전

망과 감축목표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포함한다.

군은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59만 7000톤) 대비 온실가스 43% 감 축을 목표로 건물 부문 8개(신재생에 너지 확대 등), 수송 부문 10개(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등), 농 · 축산 부문 10 개(친환경 · 저탄소 농업확대지원 등), 폐기물 부문 7개(폐기물 감량 및 재활 용 활성화 등), 흡수원 부문 6개(흡수 원 조성 및 보전 등) 등 5개 부문 41 개 과제를 마련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기후변화 대응 · 산림 재해 예방”

고창군, 제80회 식목일 청림나무심기 행사 열려

고창군이 2일 고창읍 내동리 일원에 서 제80회 식목일 청림나무심기 행사 를 열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 회 군의장 및 군의원 산림조합, 고창 치유약쑈, 조정경협회, 임업후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해 고창읍 내동리 입아 1.8ha에 편백나무 1500주를 심었다.

특히 올해 식목행사는 2년 연속 청 림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청림 나무 심 기로 진행됐다.

먼저 김종신 산림복지과장과 직원대 표가 청림 다짐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청림 실천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청림나무심기’ 행사에 모 목을 심고 청림리본을 달면서 모든 직 원이 청림 문화 확산과 공유를 다짐했 다.

청림 다짐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 △안전보다 공익 우선 △부정 청

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부당 요구 및 지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창군은 조림사업 올해 총 65ha규모로 진행되며, 약 4억4000만원이 투 입된다. 조림사업은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 30ha, 공익증진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5ha, 산림재해방지 조림 20ha, 내화수림 조림 10ha를 실 시한다.

편백 · 백합나무로 13만2500본을 심 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밀원자원 확 보를 위해 백합나무를 식재해 양봉하 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체계적인 산림 관리와 조림사업을 통해 건강한 숲을 가꾸고,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 재해 예방에 기여하겠다”며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 · 공급하고 조림지 사후관리를 통한 경제림 조성 기반 마련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 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 업무 확대 운영

정읍시가 청명 · 한식 기간 동안 개 장 유골 화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서 남권 추모공원의 화장 업무를 확대 운 영한다. 시는 오는 4월 4일부터 6일까 지 사흘간 하루 최대 화장 가능 건수 를 기존 8건에서 15건으로 늘려 유족 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청명과 한식은 조상의 묘를 손보거 나 이장하는 전통이 이어지는 시기로, 매년 이 시기에는 개장 유골 화장 수 요가 평소보다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장제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 고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일시 적인 확대 운영을 결정했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서는 먼 저 묘지가 있는 읍 · 면사무소에서 개 장 신고를 하고, 개장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화장 예약을 해야 한다. 동 지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를 통해 신 청 가능하다.

화장 예약은 ‘에홀 장사정보시스템 (www.15774129.gokr)’에서 ‘화장예약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 다. 방문이나 전화 접수는 불가하며, 화장 예정일 기준 15일 전 0시부터 예 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4월 5일 화 장을 원할 경우, 3월 21일 자정부터 예약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외국인 근로자 진료 혜택 강화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건강 권 보호를 위해 ‘화년의료공제회’와 손잡고 공제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에서 의료공제회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화년의 료공제회(회장 이문식) 및 정읍시·병 원 관계자들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 자리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 롯한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화년의료공제회’는 건강보험 혜택 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 상으로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민간 의료보험 제도다. 협력 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수가 100%가 적용되며, 진료비와 약제비는 영수증을 공제회

에 제출하면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 다. 또한 응급의료비 등 추가 지원 혜 택도 제공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의료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화년의료공제회비를 직접 지 원하며, 진료 편의를 높이기 위한 협 력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지 원으로 의료 시각자대에 놓여 있던 외 국인 근로자들의 진료 접근성이 획기 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507명의 외국인 계절근 로자가 입국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 올해는 공공형 40명을 포함해 총 870명의 계절근로자 입국을 앞두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